

모든 유아의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0년 보육과 유아교육의 변화

백선희 소장

2020년 새해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큰 흐름이 바뀔 예정이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채용 중인 3-5세라면 모두가 공통으로 적용받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실행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그동안 맞춤형 보육제도로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구분되어 오던 보육지원체계가 기본보육과 추가보육으로 구분되어 비용 지원 및 인력지원의 전체적인 틀이 바뀔 것이다.

2019년 한해는 이러한 큰 흐름의 변화를 준비하고 시범 적용하는 과정이었고, 이번 포럼 겨울호에서는 그 과정과 향후 과제에 대해 담고자 하였다.

먼저, 누리과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0번의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자율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에 포함된 '유아·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라는 내용에 기반 해 개정되었다. 그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이 놀이중심, 유아중심이라는 기본 철학에서 출발 하였지만 그 본래의 취지로 돌아가고, 놀이와 배움의 주도권을 교사와 기관 중심에서 유아중심으로 이동시키자는 철학이 바탕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8년부터 누리과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 2019년에는 본격적으로 고시문 발표, 개정 누리과정의 후속지원 사업들이 이루어졌다. 해설서, 놀이이해, 놀이실행 자료뿐만 아니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 시범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학부모의 놀이에 대한 이해력 제고를 위한 다큐멘터리 등 홍보사업이 2020년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준비되어 왔다. 연수와 시범 적용을 통해 개정 누리과정의 철학과 방향인 유아중심, 놀이중심이 현장에 크고 작은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임을 감지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의 운영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준비가 있었다. 그동안 보육교사의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과 어린이집의 운영시간이 맞지 않는 부분, 실제 오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 가구가 있음에도 지원체계의 한계로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번 계기로 대폭 변화 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기본보육시간과 추가보육시간으로 구분됨에 따라 보육교사들의

근로시간을 보장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추가보육시간을 위한 지원 인력과 비용이 별도로 제공됨에 따라 기본보육시간 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하는 가구들의 육아 욕구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들은 많다.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과 가치가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연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컨설팅과 후속 지원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기관의 편차, 교사의 격차에 대해 현장은 아직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양성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그대로인 상태여서, 당장 신규로 취업하는 교사들의 누리과정 실행력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학부모들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한 성공요인인 만큼 학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본다. 다음으로 보육지원체계의 성패는 추가보육시간을 담당하게 될 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추가보육 시간 담당 교사의 수급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2020년의 시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의 보완점을 도출해 내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유아들이 행복하게 놀이하며 배우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가야 할 것이다.